

광엑스포 연계 앵커사업단 취업박람회…미래 일자리 매칭

28~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120개 기업 상담·면접

LIG D&A·한화시스템·엠코 등 참여 대기업 설명회도

전남광주앵커사업단이 주최하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1회 전남광주 앵커사업단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B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내일의 일자리, 오늘 여기서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기업과 대학, 청년을 연결하는 채용 중심 행사로 마련

됐다.

광주전남 지역기업을 비롯한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직무 상담과 채용 상담, 현장면접 등을 진행한다.

한국알프스, 오이솔루션, 우리로, 엠피닉스 등 제조·광융합 기업을 비롯해 세계로병원, 문영래정형외과의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디오설리조트, 홀리데이인광주

호텔, 쿠팡, 시월애헤어수완1호점 등 의료·금융·관광·호텔·유통·서비스 분야 기업도 참여한다.

청년 구직자를 위한 대기업 채용설명회에는 LIG D&A, 한화시스템, 엠코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한다. 기업별 채용계획과 모집 직무, 인재상, 지원자격, 직무별 필요 역량, 채용절차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취업컨설팅과 직무상담, 인공지능(AI) 기반 취업지원, 미래산업 직무체험, 기업·구직자 매칭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직자가 자신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기업과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남광주 지역 대학들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재학생과 졸업예정자, 미취업 청년 등이 기업과 직접 만나 채용정보를 얻고 취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와 전남·광주 앵커사업단은 행사에 앞서 대학별 학생 수요와 기업 채용수요를 파악하고 기업과 학생 간 직무·전공 mismatch를 줄이기 위한 협

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박람회는 같은 기간 열리는 ‘2026 국제광융합엑스포’와 연계해 진행된다. 엑스포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한 ‘광반도체 특별관’이 운영되며, 8개국 68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도 열린다.

취업박람회 참가자들은 기업 채용정보와 함께 광융합·광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기술과 기업을 현장에서 접하며 관련 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산업 전시와 기업 탐색, 직무 이해, 채용 상담, 현

장면접, 취업 연계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업에는 인재 확보 기회를, 청년에게는 지역 일자리와 미래산업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신길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120여개 기업과 지역 대학, 청년이 한자리에서 만나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국제광융합엑스포와 연계해 광융합·반도체·방산·AI 등 미래산업과 새로운 직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은행 개인정보 잇단 유출…보안망 ‘비상’

신한 2만5000명·국민 119명·하나 89명 피해 우려

국내 양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금융권 보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이 아닌 별도 업무지원 서비스가 공격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전반의 보안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입으로 고객 119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신한은행에서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고객별로 유출된 정보 항목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은 이번 사고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고객의 직접적인 금융거래 시스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외부 접근을 인지한 뒤 관련 서버와 접근 경로를 차단했다. 유출 대상 고객에게 사고 사실과 2차 피해 예방 방법을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피해 신고와 문의를 받기 위한 전담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나은행에서도 AI해킹으로 고객 89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유출 항목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직장명 등이다.

하나은행은 해당 시스템이 인터넷·모바일뱅킹 거래 시스템과는 별개의 채널이며, 이번 사고가 고객 금융거래 정보 유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전날 다른 금융기관에 대

한 해킹 시도를 인지한 즉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TF팀을 가동했다.

앞서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간편조회 서비스가 공격받아 약 2만50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과 전화번호를 비롯해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 금융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신한은행 역시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으며, 피해 발생 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공통점은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이 아닌 별도 업무지원 시스템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 전용 서비스, 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이 각각 공격 대상이 됐다.

금융권에서는 AI를 활용한 해킹이 보안 대응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를 이용하면 여러 시스템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색하고 반복적인 공격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보안 관리가 취약한 외부 연계 서비스나 보조 시스템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이 직접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보안 관리 책임을 가법계 불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객 정보가 전화번호 등과 결합하면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문자 메시지, 맞춤형 피싱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보안 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도 예상된다. 국회 정부위원회에서는 은행장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반복되는 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



코스피, 5거래일 만에 ‘7000피’ 탈환 코스피가 상승하며 5거래일 만에 7000선에서 마감한 지난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32.39p(0.46%) 오른 7003.74로 거래를 종료했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절반 이상 ‘20년차’

평균 차령 20.3년…노후차량 국비 지원은 1년 새 33.6% 감소

전국 도시철도 전동차의 노후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광주도시철도 1호선도 전동차 절반 이상이 차령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 전동차 교체를 지원하자는 정부 예산까지 올해 33.6% 줄면서 지방 도시철도의 차량 교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지하철 호선별 전동차 수 및 연식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39개 도시철도 노선 가운데 11개 노선의 평균 차령이 20년 이상이었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은 전체 전동차 92칸 가운데 52칸이 차령 20년 이상으로, 노후 차량 비율이 56.5%에 달했다. 평균 차령은 20.3년으로 전국 39개 노선 가운데

9번째로 높았다.

도시철도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동차 차령 20년을 노후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약 25년을 차량 교체 검토해야 하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의 평균 차령이 31.0년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도시철도 1호선 28.7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26.1년, 수도권 도시철도 6호선 26.0년, 인천도시철도 1호선 23.6년 등의 순이었다.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 사업 국비 예산은 2025년 1126억 1600만원에서 올해 747억2700만원으로

378억8900만원(33.6%) 줄었다. 최근 5년 가운데 2025년 1126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 다시 700억원대로 감소했다.

현재 정부는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비용의 25%를 서울에, 그 외 지역에는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낮은 국비 지원 비율로 인해 노후 차량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국민의 발인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를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비율 상향 등을 통해 지하철 노후 전동차를 적기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미래채움 바이브코딩 해커톤’

17~18일 초·중학생 40명 대상

(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SW미래채움센터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26 광주SW미래채움 바이브코딩 해커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다양한 지역문제를 탐색하고, 생성형 AI와 바이브코딩을 활용해 해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SW·AI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AI·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참가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학생 총 40명이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학생들은 5명씩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행사는 오는 17일 사전 교육과 18일 본 대회로 진행된다. 사전 교육에서는 생성형 AI와 바이브코딩 등 관련 기술을 배우고 팀별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본 대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협력해 결과물을 완성한다. 참가자들은 공공데이터와 최신 AI 기술을 연계해 지역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임정호 GICON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이번 챌린지는 학생들이 생성형 AI와 바이브코딩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보는 뜻깊은 교육”이라며 “SW·AI 기술을 어렵게 느끼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도구로 경험하며 창의적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 신청은 10월 14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W미래채움 홈페이지(https://www.sweduhu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호남데이터청 ‘9월 소비자물가동향’

전남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로 둔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공업제품과 전기·가스·수도, 교통비 등이 오르면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또 신선채소 가격이 한 달 사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추석 이후 장바구니 물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호남지방데이터청에 따르면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비자물가동향’ 조사 결과, 지난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0.8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2%,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8월 3.2%에서 0.5%p 하락했다. 올해 1~9월 누계 상승률은 2.6%로 집계됐다. 월간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물가 수준 자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높은 상태를 이어갔다.

전국적으로는 작년 동월보다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4월 2.6%, 5월 3.1%, 6월 3.2%로 높아졌다가 7월 2.8%로 소폭 내려갔다. 이후 8월 3.1%를 기록했다가 지난달 2%대로 진입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이후 약 반년간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치(2.0%)를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20.36으로 전월보다 0.1%, 전년 동월보다 2.7% 상승했다. 전남은

3.2%→2.7%…전기·가스·수도 6%·교통 8.6% 올라
생활물가 2.5% ↑…신선채소 한달새 13.3% 급등

121.33으로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2.8%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광주와 전남 모두 전월보다 0.4%p 낮아졌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상품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상품은 전월보다 0.9%, 전년 동월보다 3.1% 상승했다. 서비스는 전월보다 0.4%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4% 올랐다.

상품 가운데 농축수산물물은 전월보다 1.5%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0.9%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4.4%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전월보다 6.0% 급등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는 교통비 부담이 눈에

띄었다. 교통 부문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8.6% 상승했다. 음식·숙박은 2.8%, 의료·신발은 2.7%, 오락·문화는 4.6% 올랐다. 주택·수도·전기·연료는 1.5%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1.1%, 주택·수도·전기·연료가 1.2% 올랐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한 생활물가지수는 123.70으로 전월보다 0.6%, 전년 동월보다 2.5% 상승했다.

식품은 전월보다 0.7%, 전년 동월보다 1.4% 올랐다. 식품 이외 품목은 전월보다 0.5%,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해 식품의 생활비 부담도 이어졌다.

신선식품은 품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 1.4%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4.4% 하락했다. 특히 신선채소는 전월보다 13.3% 급등했다. 반면 신선과일은 전월보다 6.8%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1% 떨어졌다. 신선어개는 전월보다 0.1%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3.8% 상승했다.

신선식품 전체의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에도 채소 가격이 한 달 사이 크게 오를 만큼 소비자가 체감하는 식료품 가격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통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작성된 통합 지역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별 품목의 실제 가격이나 가구별 체감물가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